



인터뷰

최용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대학 불자네트워크에 교수들 참여 절실하다”

21세기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2011교수불자대회, 그렇다면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화두는 무엇일까.

최용준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불자 교수와 대학생들의 참여 저조로 인한 대학 불교 실행활동의 쇠퇴를 들었다.

최근 대학가에는 취업률 악화로 동아리 활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수들의 연구 및 지도 활동도 예전과 달리 성과 위주의 평가제가 도입되며 각종 인문활동이 타격을 받고 있다.

최용준 회장은 “불자교수들에게 활동을 제안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바빠서’란 말”이라며 “대학 불자네트워크는 교수들이 이끌어줘야 하는 역할이 큰 만큼 이런 참여저조가 불교의 미래인 대학생 불교네트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창립 당시부터 80년대 까지 130여명에 달했던 지회가 110여개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불교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 그중 부산대에조차 최근 대학생동호회가 없어졌다.

최용준 회장은 “이런 와중에 원력을 가지고 직접 후학들을 이끌고 불교유적 답사를 비롯한 경건 공부 등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을 보면 감사할 뿐이다. 불자연합회지 원고 지금을 비롯해 실행활동 지원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교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불자대회에 참여한 교수들

21C 화두, 교수들이 풀어낸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수원 용주사서 교수불자대회 개최

이 시대의 참가치 실현을 위한 불자교수들의 진지한 구도열기가 화성 용주사를 가득 채웠다.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한 장맛비가 내린 6월 27일. 다양한 이념과 사상, 그리고 계층 분화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수들이 모여 사회 정의와 복지, 남북통일과 같은 굵직한 화두를 불교적 시각에서 조명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준)가 개최한 교수불자대회에는 100여 교수와 불자들이 참여해 2박 3일간 불교 학술강연을 비롯해 선 체험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진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21C(세기) 화두의 불교적 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의 5대 결사 일환으로 매월 사회현안의 각 주제를 바탕으로 대토론회가 진행되는 등 불교계 내부에서 사회이념의 불교적 대안 제시가 주요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축사를 위해 참가한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도 불자교수들의 이론적 대안제

시와 함께 불자후학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호 스님은 “리처드 기어의 방한을 보면 불자 1명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각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곁에 불교를 퍼뜨리는 이가 훌륭한 포교사며 부처님 제자”라며

임제식을 시작으로 교수들은 용주사 호행문화관에서 2박 3일간 각종 학술행사와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첫째 날에는 김규철 동국대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선(禪)피아니스트 임동창 씨의 공연이 저녁 9시까지 이어졌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숲명상학교 교장 마가

적인 학술대회가 펼쳐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제가 진행됐지만 주된 관심은 날로 심화되는 경쟁 사회에서 불교적 가치를 어떻게 펼 것인가였다.

김규철 교수는 “21세기 복합시대 생활 세계의 화두”에서 “참된 자유주의가 제대로 확산되려면 경제적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가치 향상 추구가 진행돼야 한다”며 문제의식을 던졌다.

김규철 교수는 “현대적 가치추구로 인간존엄, 생명존엄, 공동체 의식을 들고 이를 위해서는 깊이있는 사유와 종교성을 넘는 구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근 동국대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교수,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 김용환 충북대 교수, 이인자 경기대 명예교수 등이 나와 ‘불교와 평화’ ‘한반도 통일과 불교의 역할’ ‘시장경제와 불교 윤리’ ‘불교와 미디어’ ‘불교와 사회정의’ ‘한국 노인복지의 불교 이념적 접근’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불교와 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기독교 사상에 근간한 자유주의 사상과 불교 사

2박3일간 낮에는 토론 밤에는 불교문화체험

경쟁 심화 사회에서 불교가치 펼 것 서원해

“불교적 가치와 이념을 넘어 학문연찬과 후학양성으로 승화시켜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해종 스님도 범어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와 노력 또한 부처님의 수행과 다르지 않다”며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인 불망지(不忘知)를 얻어 행동거지 하나 하나에 부처님의 법향이 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의 지도하에 자비명상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마가 스님은 “교수 불자들이 각종 연구 활동 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며 “자비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도록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평화와 경제, 미디어, 사회정의, 복지 등의 분야에서 본격

상에 근간한 공동체의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류 교수는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직업의식과 소명감이 나왔다면 불교 경제윤리에서는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공평성을 도입할 수 있다”며 “기독교 시장경제의 합리성과 불교 공평사회의 합당성을 조화해 세계화에 부응하는 공공 시민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순 동의대 교수도 ‘경제발전·경제성과 측정의 불교적 이해’ 발제에서 “주류 경제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접근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며 “소득격차 확대 및 갈등 증폭을 해소할 수 있는 불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불교의 핵심논리는 경제, 사회, 자연, 구성원 각자의 건강과 삶을 통합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불교의 기여는 양적 성장에 대한 논리적 반증을 제시하는 데서 시작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미얀마 양곤 신도시 나인따야에 위치한 5만평 대지

코리아 기술 종합 대학교



2010년 12월 12일 신축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자동으로 선임되고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에서 운영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후진국 빈곤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바꾸어 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생의 지평이가 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불자, 숨은 봉사자를 찾습니다.

초빙 안내

총장, 명예 교수 겸 운영이사

자 격 : 부처님의 제자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1년에 1주일이상 학교에 머물며 학교 건축 및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할 모든 종단 및 남녀불문하고 스님 및 재가자를 모시고자 하며, 총장 선임자는 교육계 정년 퇴임자 중 헌신 봉사할 불자를 찾습니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이사장 목탁 헤은 합장
대표 전화 02)733-5665, 011-229-606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시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임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맘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임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불제자를 모시고 싶습니다. 재물 보시도 중요합니니다. 가진 것 없어도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 또한 값진 보시이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적 봉사입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제자들이 됩시다.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외교법인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회 장 목탁 헤은
부회장 금당 법성

포교원장 불도 천장 교육원장 현담 송광 감찰원장 일해 공심

전화 02)730-5670

국민은행 023-501-04-147581